

법사 조대 고우 스님 각화사 선원장

자기를 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부처님이 발견한 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안 나고 좋은 것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복불교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부처님 앞에 가서도 욕망만 커지고 탐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사회복지사들의 경전공부

12일 오후 5시 서울 개운사 법당. 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10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과 사회복지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매일 둘째 주 목요일은 법인 이사장 증법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의 <법화경> 강의를 듣는 날. 바쁜 업무를 잠시 접고 달려온 80여명의 복지사들이 경전공부에 빠져든다.

승가원이 마련한 이 강의는 단순히 불교를 가르치고 배우



있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승가원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무종교 복지사가 강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도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 한 차례씩 법인 사무국 직원 12명이 자체적으로 소그룹 형태의 <법화경> 공부모임을 구성. 경전 독송과 열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계 복지단체가 이렇게 불교공부 모임을 갖는 일은 드문 경우로, 불교사회복지계에서 받아들일만한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인가 비인가 복지시설은 대략 500여 곳.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불교강좌 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일년에 한두 번 사찰을 찾아가는 '맛보기식' 수련회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불교적 심상과 마인드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불교복지가 발전하려면 먼저 종사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다른 복지시설들도 승가원의 '경전모임'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우(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출가연령

1.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 제한 법조항을 15세부터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40세 이상의 늦은 발심자에게 출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없다

2.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①엄격한 특별 심사를 통한 예외적 출가의 허용
②종무행정 등을 관장하는 전문 제정으로 수용 ③기타

설문 참여: 9월 1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8호 9면에 실립니다.

비슷한 종단명칭에 신도들 혼란

조계종 법률 자문, 민·형사 대응... 종단협, 종단난립방지책 강구

천태·관음종 명칭 특허등록, 사전예방 "CIP작업 등 종단 고유 정체성 확립 시급"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종단이 대폭 늘면서 신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조계종 등 기성 종단들이 CIP작업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종명 '조계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신성종단을 조사한 결

과 전국에 15개 종단(표 참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최근 창건한 '조계종 ○○불교' 등에서 승려 등 수백장을 발급하면서 승려증 소지자들이 조계종단 소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 승려증 회의를 의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진상조사를 나섰다. 이외에도 조계종은, 명칭이 비슷한 종단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총무원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 고원수 과장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합법으로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종단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명칭이 들어간 신성종단

- 대한불교 조계종 상하불교
- 대한불교 조계종교계종
-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 한국불교 조계종
- 해동불교 조계종
- 세계불교 조계종
- 연합불교 조계종
- 대승불교 조계종
- 여래불교 조계종
- 대신불교 조계종
- 현대불교 조계종
- 한국근원불교 조계종
- 한국전통불교 조계종
- 마주(馬州)불교 조계종
- 아주(亞州)불교 조계종

라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종단협은 8월 29일 총남도청에서 종단단체 설립허가 검토를 공식 요청해오며 따라 내부 검토와 실질적 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함께하는 수해복구"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비구니 승가대학 겸천암사는 다리와 진입도로가 유실되고 식수탱크가 손실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 동국대경주석림회 스님 50여 명이 청암사 스님들과 함께 13일 쓰러져 뒤엎린 100여 그루의 나무를 치우는 등 수해복구에 나섰다. (관련기사 23면) 박원규 기자

원로회의 의원에 진제스님 추천

'출가자 연령 40세이하' 개정안 통과

조계종 154회 총회

새 원로회의 의원에 진제스님(동화사 주지)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 10일 재적의원 80명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4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행정교육원 수확자력 40세이하를 골자로 하는 교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25기 행정교육원 입소 행사부터 40세 이후 출가자는 입방이 불허된다. (관련기사 3면)

총회는 또 제2기 고사위원에 법산, 할적, 지오, 지안, 현목, 종석, 지현, 지욱, 지형스님을 선출하고, 종무원(총무사 주지) 해임건의 및 중장계 추구건은 집행부에 위임하여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총회는 종무원 집행부에 분담금 감면 등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북한산 관통도로노선 재검토"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서 결의안 채택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가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노선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규는 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시민·종교단체가 제시한 우회노선을 포함해 국립공원으로서의 위지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노선을 위해 현 노선을 재검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 노선은 수도권에 하나뿐인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락산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스님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또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인더체인지의 건설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 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양선 기자 shanmok@buddhapa.com

本紙 구독료 자동이체 바랍니다

신앙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로 전회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드립니다.
-구독료 연회료 납입을 수월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서 불필요합니다.

2. 자동이체 신청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세 희망일자를 전후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②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 우체국은 제외
③ 이세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 자동이체 문의·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 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